

# 삼성전자, 55인치 OLED TV 공개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 ... 60인치 · 70인치 초대형 스마트 TV도 공개

삼성전자가 차세대 TV로 주목받고 있는 55인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양산 모델을 5월10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 OLED TV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2>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프리미엄 전략 제품으로 알려졌다.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하나하나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로 어두운 화면에서도 세밀한 영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며 각각의 색을 만들어 기존 LED TV 대비 20% 이상 풍부한 컬러로 자연 그대로의 생생한 색을 표현한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빨라져 스포츠 영상에서도 화면의 끌림이나 겹침이 없이 선명하다.

특히 3D 입체 영상을 구현할 때도 화면 겹침없이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한다.

삼성 OLED TV ES9500은 기존의 스마트 TV에서는 볼 수 없던 차별화된 <스마트 듀얼뷰> 기능을 선보였다. 두 개 채널을 동시에 풀 HD로 시청할 수 있고 이어폰이 달린 3D 안경으로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인터랙션>, <스마트 콘텐츠>와 <스마트 에볼루션>까지 올해 삼성전자의 미래형 스마트TV의 첨단 기능이 모두 탑재됐다.

두께와 베젤이 얇아져 한층 간결해져 시청시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

삼성전자는 대형 55인치 OLED TV 공개에 이어 60인치부터 75인치까지 초대형 스마트TV를 소개하며 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60인치 이상 대형 스마트TV 라인업도 강화해 글로벌 리더로서 초대형 프리미엄 카테고리를 주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현석 사업부장은 “55인치 OLED TV 양산모델을 통해 차세대 슈퍼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0>